

'마인드 교육' 전 세계 이목집중

청 소년은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이기에 나라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폭행, 자살, 중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보지만 근본 원인과 뚜렷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삶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감과 내일을 이끌어 갈 가치관에서 비껴난 지 오래이다.

(사)국제청소년연합(이하 IY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는 지식과 기술 중심의 교육이 더 이상 청소년들을 변화, 발전시킬 수 없음을 예견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20여 년 전부터 마인드 교육을 강조하며 청소년 선도활동에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본보는 대한민국을 마인드 교육의 산실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IY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를 만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IYF 청소년 인성교육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1993년 LA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그 아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고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다. 성경에 나타난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 해주면서 학생의 마음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다. 이후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몰라서 고통과 절망 속에 갇혀 지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 학생의 이야기가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미국에서 교포 2세대들이 찾아와 1995년 '한미연합청소년수련회'가 시작됐으며 2001년에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IYF)'으로 공식 출범했다.

사람의 마음에는 흘러가는 길이 있다. 나는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에 대한 지혜를 배웠고, 젊은이들이 물질세계가 아닌 마음의 세계, 즉 마인드 교육을 통해 행복 속에 잠들고 희망 가운데 눈뜨게 되길 바란다.

IYF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월드컵기간에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 방안과 상호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세계청소년부장관포럼과 세계대학총장포럼이 부산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 APCE하우스 등지에서 진행된다.

먼저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한 '세계청소년부장관포럼'은 23개국 청소년부 및 교육부 장관, 차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모여 자국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 해결책 등을 논의하고 모색한다.

아울러 대학 내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40개국 75명의 대학 총장, 부총장 및 교육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세계 대학총장포럼'이 6회째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 대학생들이 세계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보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보는 등 대학생 주도형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길러내는 '리더스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IYF의 대표 글로벌 축제인 '월드문화캠프' 소개?
IYF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밝고 활기찬 젊음의 축제가 있으며, 자신의 틀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도 있다.

그 중에서 월드문화캠프는 매년 여름 전북 무주태권도원과 부산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차세대 리더가 될 전 세계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글로벌 교류의 장이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남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29개국에서 정부 관계부처의 요청과 협조를 받아 개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IYF 인성교육의 핵심인 마인드 강연을 비롯해 명사초청강연, 클래식 공연, 세계 각국의 문화공연, 주요 도시 탐방 및 문화체험, 단축마라톤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기 한계를 넘고 완주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5km 단축마라톤과 포스댄스 등 참석한 대학생들이 도전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

▲IYF의 마인드 교육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IYF는 성경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인드 교육, 즉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이 흘러가는 길을 정확히 알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게임하지 말아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막연한 각오와 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더 강한 것에 끌리게 되는 '힘의 원리'처럼, 청소년들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길러주어야 한다.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게임하는 습성을 고치는 것이 쉬워지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밝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마음 속 '힘의 원리'이다.

▲세계 청소년 지도자들이 '월드문화캠프'를 찾는 이유는?



1. 국제청소년연합(IY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가 2009년 가나 월드컵에 참석한 학생들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제6회 아세안 챔버리더대회 개막 후 따금시의 열린 시장의 주관으로 시청에서 열린 리셉션.
3. 2018 월드문화캠프 개막식의 모습.
(사진=국제청소년연합 제공)

IYF 마인드 교육은 현재 많은 나라의 정부와 교육부처 관계자들의 인정을 받아 정식 교육으로 채택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에스와티니·에티오피아 등은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을 비롯해 온 국민이 마인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필리핀 마약 자수자'와 '볼룸비아 반군 희생자 관계자 및 리더'를 위한 마인드 교육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오직 성경'만을 강조하며 세계 기독교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교지도자대회(CLF)는 지난해 3월 뉴욕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자!"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2만 5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는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부 장관부터 수천 개의 교회를 관리하는 비숍과 교단의 총회장들도 있어서 한 나라의 기독교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이 포럼은 성경을 기본으로 논의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이 지 되잖아 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신앙의 가치나 역할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돌아 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로서 신앙에 대한 고민과 목회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복회자들은 '복음'이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공감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확인한 뒤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CLF는 출범이래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목회자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는 세계 최대의 대회장으로 우뚝 섰고, 기독교계의 타락하고 어두워진 곳을 밝혀나가는 중심이 되었다. 목회자들이 CLF와 함께하며 교파를 넘어 성경의 진리로 전 세계가 깨어나기를 희망한다.

저서 '마음 밭에서' 인생을 바꿀 책 선정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 말 등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 마음이 희망이 되며 절망이 되기도 한다. 인생 역시 마음을 따라 흘러간다고 조언하는 박옥수 목사의 '마음 밭에서'가 출간됐다.



IY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는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답게 마인드 북을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마음 밭에서'는 교보문고에서 '인생을 바꿀 책 한 권'에 선정되었으며 '나를 팔고 가는 너는 누구냐', '마음을 파는 백화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에 이은 마인드 북 시리즈로 한국어판을 시작으로 중국어, 영어판으로도 출간되고 있다.

이 책은 가정불화 청소년범죄·인터넷 중독 등 암울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내용은 ▲정글로 돌아간 표범처럼 ▲배은망덕한 포도원 농부 ▲시애틀을 추정의 위대한 연설 ▲마음에 슬픔을 심은 아가씨 ▲두려움의 끝에 선 부인 ▲아버지를 두 번 울린 클라라 ▲감옥으로부터 온 청년의 편지 ▲절망의 독을 이긴 남학생 ▲항암치료 졸업생 김운옥 등 9개 챕터로 구성됐다. 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박 목사가 겪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저술했다.

기독교여행

남원으로 가자GO!!

동화축제

남원에촌 동·동·동

바래봉 눈꽃축제

(12. 29 ~ 2. 10)

동화축제

(12. 22 ~ 12. 25)